

중국인에 근거 없는 '혐오 정서' 확대

3D업종 떠받치던 中동포 "바뀌주세요" 문의...식당은 썰렁

요양보호사·가사도우미 타격 심해...10년째 한국살이 "억울"



30일 오전 서울 대림동 골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해 중국어로 적힌 예방 수칙이 걸려있다.

“(조선족) 이모님이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중국은 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입국한 친지를 만날 수도 있어서요.”

“외식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저번주에 외식하려 했는데 조선족이 중국어로 얘기하는 게 살짝 거슬렸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중국 최대 명절 기간인 춘절(春節)까지 겹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 정서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밀집해있는 대림동을 찾았다. 저녁 무렵이었지만,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는 대부분 한산했다.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의 거리는 마스크를 쓴 주민들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림동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모씨(42)는 “최근 들어 밖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림동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냐는 질문에 “그것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을 줄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더불어 춘절 기간도 겹치면

서 중국 동포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감과 두려움도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중국 음식을 즐겨 대림동을 자주 찾았다는 김정훈씨(30)는 “아무래도 최근 사태 이후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을 찾는 것이 꺼려졌다”며 “중국 명절 기간에 가족들을 만나러 다녀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림동 일대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은 최근 한국인들의 중국 혐오 정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0일 오전 대림중앙시장에서 만난 중국 동포 강모씨(48·여)는 “한국에서 산 지 20년째다. 부모님도 다 여기 있는데 중국에 갈 이유가 없다”며 “(최근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 정서와 관련해) 뉴스에서 접했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동포 차모씨(40)도 “춘절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방문할 계획은 없었다”며 “(중국에 방문한 적도 없고)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억울해 했다.

문제는 국내에서 대부분 꺼려해 중국 동포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직종인 방문요양보호사나 가사도우미 등의 직업군에서까지도 혐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등포 인근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몇몇 현장으로부터 조선족이나 중국 출신을 보내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래도 최근에는 (중국 동포 등이) 제일 뒷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맞다”고 털어냈다.

김씨에 따르면 하루 평균 최소 10명 이상의 중국 동포들이 이곳에서 일거리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평균 1~2명에게 일거리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마저도 오랫동안 얼굴을 트고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김씨는 전했다.

20여명의 중국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한 방문요양센터 사장은 “솔직히 말해서 우한폐렴 사태 이후 (중국 동포를 바뀐다) 전화를 여러통 받았다”며 “다행히 잘 이 야기는 했지만 앞으로 막막하다. 당장 국내 인력을 더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대림동 인근의 다른 가정방문요양센터 직원도 “근래에 요양보호사가 중국 분이나고 물어보는 문의가 들어온 적 있다”며 “(이미 중국 동포 요양보호사를 두고 있는 가정에선) 앞으로는 꼭 마스크를 하고 와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국은 거부했는데...” 임종석의 ‘포토라인 전략’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의 ‘깜깜이 출석’이 이어져 왔으나 임 전 실장은 전날 출석 일자를 전격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출석을 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의 검찰 소환 불응 보도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면서 ‘임종석은 무죄’라는 주장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44분께 검찰은 정장에 노타이 차림, 왼손에 입장문 한 장을 손에 쥔 채로 서면 폐지함에 따라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의 ‘깜깜이 출석’이 이어져 왔으나 임 전 실장은 전날 출석 일자를 전격 공개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출석을 한 것이다.

임 전 실장 공개 출석으로 그 따른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면서 ‘임종석은 무죄’라는 주장을 적극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공개소환 전면폐지로 잇따른 ‘깜깜이 출석’ ‘소환 불응’ 프레임 벗으며 “기획 수사” 여론환기 시도

“마스크 300만장 급구”...국내 구입, 중국 판매 ‘장사꾼’ 속출

온라인커뮤니티에 “급하다”며 구매 요청 글 속속

“마스크 물량 6만장을 원한다. 중국 기업에 마스크를 팔려고 한다.”

국내에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사들인 뒤 중국 기업에 파는 일종의 ‘바이어’ (구매 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전날부터 마스크 바이어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마스크”를 사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총 300만장 필요함입니다”며 “급하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60만장”, “100만장” 등 필

요한 수량이 적혀 있었다. 바이어 대부분 자신의 휴대전화도 글에 함께 남겼다.

한 바이어는 (뉴스)과의 통화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마스크를 팔려고 한다”며 “일단 시세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60만장 정도 필요하다”며 수량을 제시한 뒤 “너무 비싼 가격이면 제가 살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에 거래했던 사람은 저에게 총 4000장을 팔았는데 장당 가격을 800원으로 잡았다”며 “10만장을 파실 생각이면 판매가를 좀 내려야 한다”고 ‘홍정’을 거듭했다.

또 다른 바이어는 “물량 200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주문량이 100만장 수준이라면 물량을 못 주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에게 장당 가격을 800원으로 제시하자 “500원 정도가 적당하다”며 “물량을 엄청 많이 하니 장당 가격이 100원만 나도 부담이 크다. 800원은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중국에서는 우한 폐렴 우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완전히 동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폐렴 환자가 현지에서 계속 늘어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자국으로 가지고 갈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중국인 거리’에서 배달 일을 하는 ‘중국동포’ 최모씨(42)는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며 “한국에서는 다행히 마스크 수량이 남아 최근 20만원어치 사들여 아내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